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연구*

A Study on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김혜영 (Hyeyo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 전공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서 자격증 발급 경로의 확대와 수요 증가로 인해 사서 전문직의 전문성 약화와 고용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16개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웹사이트에서 전공역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타 학문 분야 교수자 및 도서관 현장 관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전공역량은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교육자와 실무자 간의 협력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nd to propose curriculum design strategies based on these competencies. The expansion and increasing demand for librarian certification pathways have led to the weakening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growing uncertainty in the job market. In response, this research collected competency-related data from the websites of 16 four-year LIS programs at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ors from related academic fields and public library managers. The analysis identified five core competencies in LIS: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oces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utilization, library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user services and communication, and cultural and community understanding. Based on these competencies, the study suggests curriculum design strategies across institutional, practical, and educational dimensions.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improving LIS curricula and certification systems and is expected to facilitate collaborative discussions between educato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키워드: 문헌정보학과, 전공역량, 교육과정설계, 사서자격증, 질적연구

LIS, core competencies, curriculum design, librarian certification, qualitative research

* 인터뷰에 응해주신 타 학과 교수님들과 도서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시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교수님들과 임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hy@cju.ac.kr)

- 논문접수일자: 2024년 8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9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41(3), 63-83,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3.063>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사서 자격증 제도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래로 도서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로가 확대되면서 자격증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격증의 남발, 실질적인 전문성 부족,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의 낮은 취업률로 이어져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의 개편과 함께 전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승민 외(2021)는 사서 자격증 제도와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표준 교과목 개설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다. 그러나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웹사이트 데이터를 비롯해 타 전공 분야 및 도서관 관리자와의 심층면담 데이터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및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셋째,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Education, 이하 CBE)은 현대 교육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CBE는 학생들이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방식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며, 학습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평가 루브릭을 포함한다.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1973년 미국 심리학자인 맥클리랜드(David C.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학문적 성취도나 지능 검사로는 직무 성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직무 성공에 필요한 역

량을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개발 및 평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Griffin et al., 2012).

CBE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습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역량 기반 접근법은 최근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도한 21세기형 역량의 교수와 평가 프로젝트(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ATC21S)에서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핵심역량을 강조하며, 이러한 역량이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제시하였다(Griffin et al., 2012).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은 교양교육의 선진화를 목표로 핵심역량을 토대로 전공역량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전체 대학의 교육 목적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공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다(손승남 외, 2021).

이와 같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접근은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헌정보학은 디지털 환경과 정보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실무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이므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이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통

해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각 역량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박수미, 박지희, 202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계 방식을 참고하여,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각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 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2.2 전문직 인증 체계와 사서자격증 제도

전문직 인증 체계는 특정 직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직 인증 체계에서 면허와 자격증은 확연히 구분된다. 면허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직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허가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제 기관에서 발급되는 반면, 자격증은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백옥선, 이상윤, 2019).

한국의 사서 자격증 제도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되어,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도서관 전문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문헌정보학도가 대학에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었으나, 자격증 부여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승민 외, 2021).

그러나 최근 들어 사서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사서자격증 발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자격증의 질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 자격제도와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사서 자격증 발급 조건과 교육과정이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되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202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준사서 자격증 취득 경로의 다양화와 학력 차별 해소가 논의되면서, 사서 전문직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자격증 제도를 포함한 전문직 인증 체계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탐색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3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기반 연구,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구,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NCS 기반 연구는 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선영과 차성중(2016)은 NCS를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NCS 기반의 교육과정이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교육현장과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

였다. 이 연구는 NCS가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될 때 교수자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강화, 교육과정 평가 방법의 차별성,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영희와 신영지(2016)는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NCS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실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NCS의 적용이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실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사서와 정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노영희와 심효정(2023)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서의 역량을 재정의하고 이를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권나현(2016)은 사서직 계속교육의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온라인 교육과 역량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전문직 역량기준을 바탕으로 계속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국내에서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수현, 박상욱, 남영준(2022)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목이 실제 직무와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이 졸업생의 취업과 실무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가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요구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자(학생, 교수,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노영희와 신영지(2016)는 전문가 의견과 설문 조사를 통해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교육과정이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각기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NCS 기반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이나 전문직의 윤리적 태도 등과 같은 소프트 역량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데 주력함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 설계에 역량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웹사이트 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범주화하고, 전공역량과 교과과정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적 기반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의 전공역량을 분석하였다. 웹사이트에서 '문헌정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총 68개 학과가 검색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제외하고 문헌정보학 전공이 설치된 31개 대학교와 6개 전문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과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학과소개', '교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 등의 정보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람을 검색하여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중 전문대학의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후 각 학교가 설정한 학과소개, 교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에 대한 데이터를 내용 분석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면담은 비구조화 및 반구조화

방식을 혼합하여 진행하였으며, 후설(Husserl)의 현상학에 기반한 질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lived experience)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구조화 면담에서는 C지역 공공도서관 관장 2명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에서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와는 이전 만남을 통해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 면담에서 다루어진 질문들은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연구 질문 예시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주요 질문으로는 “그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당

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의료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교수 각각 1명씩을 선정하여, 전공역량 강화와 관련된 자격증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학과는 국가시험이나 자격증 발급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과들로, 제도적 틀 안에서 전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의료경영학과는 자격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표 1>은 면담에서 사용된 반구조화 심층 면담 사전 질문지로, 자격

<표 1> 반구조화 심층 면담 사전 질문지

순번	대범주	중범주	질문 예시
1	자격증과 시험제도	전공 유관 자격증	귀하의 학문 분야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이버대학 학점 이수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사이버대학 학점은 행제를 통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나요?
		기타 인증제도	학위나 자격증 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가 있나요?
		시험제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전공 관련하여 운영되는 시험이 있나요?
		선호도	민간 자격증과 국가고시를 포함한 시험제도 중에서 학생들과 실무 현장에서는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2	전공역량과 교육과정	핵심 전공역량	귀하의 학문 분야만의 독특한 전공역량은 무엇인가요?
		역량 차별화	전공역량이 다른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양과 전공과목 구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양과목의 중요성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격증/ 시험제도 역량 일치도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과정이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된다고 보시나요?
		교육과정의 설계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과정이 교육과정의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사이버교육의 역량체계	사이버 학점은 행제로는 얻기 어려운 전공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프라인 교육의 더 효과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순번	대범주	중범주	질문 예시
3	현장실습과 전문성	현장실습의 역할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전공역량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현장실습의 유용성 정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습을 통해 어떠한 실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장실습의 비중	귀하의 학문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4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성	대학교육의 방향성	대학 교육과정이 “지식, 기술, 태도” 중 어느 부분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래 필수 역량	향후 대학과 학생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역량 인증 제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전문가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 교육 설계	학문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과 시험제도, 전공역량과 교육과정, 현장실습과 전문성,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전달되었고, 심층면담은 이에 기반해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에는 자격증 발급 제도의 효과, 미래의 전공역량 강화 방안, 사이버대학 교육과의 차별성 등이 포함되었다.

질적 데이터 분석은 녹취한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주요 의미 단위로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장에 코드가 부여된 후, 유사한 패턴을 탐색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소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을 통해 현상학적 분석의 구조적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질문에 맞춘 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논문에 반영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신뢰가능성

(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신빙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일관성과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 16개 웹사이트에서 전공역량을 수집하고, 타 학문 분야 교수자 및 공공도서관 관장 5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10개의 소범주와 54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이를 3개의 대범주인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후,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전공역량과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표 2〉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생성된 범주 및 코드명

대범주	소범주	코드명	코드개수
제도적 측면	1. 자격시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	공무원 시험 필수화, 피상적 자격시험 문제, 법률상 의료기사 규정, 의료기사 합격률, 국가고시 응시자격, 필수 교과목 이수,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7
	2. 자격시험 부재 문제	자격증 발급 조건, 면허와 자격증의 기준	2
	3. 세부 분야 자격증을 통한 채용 분야의 확장	자격증 발급 확대, 자격증 종류 현황, 보수 교육, 전문 기관 채용, 채용 분야 확대	5
실무적 측면	4. 현장실습 교육 현황과 질 관리	실습 기준 설정, 실습 기관의 질 관리, 실습 기관 섭외, 실습 비용 부담, 채용 시 실습 유리점, 실습 필수 여부	6
	5. 현장실습의 대안적 방식	사이버 실습 과정, 견학 방식 운영	2
	6. 협회의 역할	교과과정 이수 관리, 실습 기관 관리, 실습 기준 관리, 온라인 실습 운영, 견학 기관 섭외	5
	7.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장실습 체계	실습 필수 여부, 실습 기관 섭외, 사이버 실습 운영, 협회 주관 실습 과정	4
교수·학습적 측면	8. 교양역량 기반 전공역량 설계	대학 전체 관점, 관리자 역량 강조	2
	9.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종합적 사고 능력, 다문화 역량, 의사소통 역량, 새로운 과목 개발	6
	10.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수업 방식 개선, 지식 중심의 한계, 종합적 사고 능력, 참여형 수업, 활동 중심 수업, 사이버 대학 한계, 조별 토의 수업, 공익 추구 태도, 윤리적 태도, 다양한 시각 형성, 깊이 있는 시각 형성, 새로운 과목 개발, 사회적 측면 강조, 어학 능력 강화, 신체 능력 훈련	15
합계			54

토대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공역량을 범주화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성에 대해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4.1 제도적 측면

4.1.1 자격시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

사회복지학, 의료경영학, 문헌정보학 세 분야의 자격증 제도는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분야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한 후 별도의 시험 없이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1급 자격증은 대학 졸업 후 추가적인 자격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P3(사회복지학)는 “시험이 주로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2급 자격증이 사이버 학점제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되면서, 현장에서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1급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면접 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졸업 후 1급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1(의료경영학)은 국가고시를 통해 발급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전에 운영하였으나, 엄격한 인증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가고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격 제도 운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행정학 분야는 사회복지학과나 의료경영학과와 달리,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P2(경찰행정학)는 경찰학개론, 형사법 외에도 범죄심리학, 과학수사론 등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프로파일러나 탐정 등 새로운 직무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경찰행정학과 교육이 특정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단순히 대학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발급되는 2급 사서자격증 외에,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자격시험 부재 문제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서, 자격시험의 부재는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P1(의료경영학)은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

격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2(경찰행정학) 역시 자격시험 부재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과목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가 자격증의 신뢰성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은 문헌정보학과와 사서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자격증의 신뢰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며, 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자격시험을 통한 검증 절차의 도입이 자격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3 세부 분야 자격증을 통한 채용 분야의 확장

참여자들은 각 전공 분야에서 세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진로 분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P3(사회복지학)는 1년간의 수련 과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사회복지사와 병원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자격증이 해당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학과, 가족학과, 아동학과를 졸업하면 발급되던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사회

복지학 전공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진출 가능 분야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필수기관이 각 지역마다 신설되면서 이러한 세부 자격증이 채용 가능성을 넓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1(의료경영학)도 병원행정사와 건강보험사 자격증이 병원 및 보건 관련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자격증이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자격증이 교육과정과 인증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000 의료코디네이터'와 같은 유사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과 구별되지 않을 경우, 자격 인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의 철저한 관리와 자격 부여 분야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찰행정학 분야에서도 자격증을 통해 경찰의 다양한 직무로 진출할 수 있는 채용 분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P2(경찰행정학)는 경찰학개론과 형사법 외에도 범죄심리학, 과학수사론 등의 과목을 통해 프로파일러나 탐정과 같은 새로운 직무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행정학과의 교육이 특정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

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법률 마이크로전공과 같은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P4(공공도서관 관장)는 채용 현장에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단순히 사서자격증으로는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지도사 자격증보다 더 세분화된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독서상담, 이용자 분석, 북큐레이션 등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격 검증 제도는 각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세분화하여 전공자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세부 자격 검증 제도, 자격증 개발, 마이크로학위 과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실무적 측면

4.2.1 현장실습 교육 현황과 질 관리

사회복지학과는 문헌정보학과와는 달리 현장실습이 필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습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실무 경험을 가진 자만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P3(사회복지학)는 현장실습의 질적 차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에서 실습을 하길 바라지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영리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실습의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영리기관에서는 실습생을 단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인력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이버대학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싼 실습비용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실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장실습의 질적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장실습의 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는 현장실습이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헌정보학 분야보다 더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경험은 자격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P3(사회복지학)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음에도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되더라도 필수 이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 경험 없이도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서 자격의 질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서 자격증의 신뢰도와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2 현장실습의 대안적 방식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경영학과에서는 현장실

습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실습과 병원 견학 등의 대안적 방식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P1(의료경영학)은 협회를 통해 온라인 실습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협회는 병원 관리자급 실무자를 섭외하여 질 높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실습처 섭외가 어려운 대학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경찰행정학 분야의 경우, 범죄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특성상 현장실습을 필수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P2(경찰행정학)는 경찰 연계 교과목을 통해 실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체포술, 무도 및 응급처치술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기 중 두 차례의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견학 기회는 교수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학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4.2.3 협회의 역할

실무적 측면에서 협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사회복지학과는 협회는 현장실습의 필수 이수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며, 실습 지도자의 자격, 실습처의 조건, 실습 일지 작성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의료경영학과에서는 협회가 질 높은 온라인 실습 과정을 운영하며, 실무자를 위한 계속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협회는

병원 견학처 섭외와 더불어 실무자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격증 시험 준비와 출제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P1(의료경영학)은 협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실습 과정과 견학처 및 특강 섭외 역할이 대학과 현장을 연결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4.2.4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장실습 체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이 법적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마다 현장실습 운영이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오랫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해온 P4는 실습이 일정한 기간 지속되지 않고, 비일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 담당자의 교육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습생들이 제대로 된 현장 학습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P4는 A대학교가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현장 실습과 연계해 운영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습생들이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현장실습을 필수 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사서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습 기간, 지도자 자격 요건, 운영 방식 등을 법령에 따라 협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학생들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서 자격을 보다 정교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4.3 교수학습적 측면

4.3.1 교양역량 기반 전공역량 설계

P1(의료경영학)은 대학교의 전공역량 설계가 교양과목에서 형성된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16개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전공역량을 분석한 결과, 교양과목에서 설정된 포괄적이고 넓은 범주의 역량이 전공역량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에 기인하며, 이는 대학 전체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공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 교양역량을 그대로 반영한 전공역량은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중시하는 정보 조직, 데이터 관리, 정보서비스와 같은 실무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같은 전문직 기반 전공에서는 교양역량을 기반으로 하되, 전공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무 역량과 함께 전문직 태도와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전공역량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4.3.2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공역량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의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도서관협회(ALA)를 비롯한 여러 사서직 전문가단체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서 전문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각 전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

량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합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강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역량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공통 기반 위에서 전공에 맞는 세부 역량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P3(사회복지학)는 종합적 사고 역량에 대해 "레고식 인간형 인재"를 언급하며,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헌정보학 전공에서도 다양한 정보 자원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P1(의료경영학)과 P2(경찰행정학)는 역시 종합적 사고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찰행정학에서는 종합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문제해결 역량 또한 타 전공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강조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병원에서는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직 내 갈등 관리와 같은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량은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참여자들 모두에게서 언급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했으며, P3(사회복지학)은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요한 수업 목표임을 이야기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도서관 관장인 P4와 P5는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매체 이해와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량이 도서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4.3.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학점은행제의 사이버 강의와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교육방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수자들의 수업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역량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P3(사회복지학)는 "많은 교수들이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수적인 경향이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이버 강의와는 달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에서도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방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버 대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드러났다. P1(의료경영학)은 “이거는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학 잘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사이버로 들으면 그냥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습득은 사이버가 해야 되겠죠”라며, 단순 지식 전달은 사이버 강의로 가능하지만, 현장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상호작용은 사이버로 얻기 힘들다고 보았다. P2(경찰행정학)도 “정규 교과 과정에서 문제 풀이식으로 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며 문제 풀이식 시험 위주의 수업 방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최대한 탈피하고 혁신해나감으로써 사이버 대학 강의와의 차별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과정 설계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매주 제공되는 워크북 형태의 자료를 통해 조별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준비해오는 방식이 조별 학습의 질을 높음을 강조하였다. P3(사회복지학)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업 시간에도 매번 이렇게 다른 생각거리, 그리고 in-class activity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시간에 하나씩은 준비

를 해요”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자료 수집이 우선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이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유용하다고 보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P2(경찰행정학)는 “여러 교수님들한테 다양한 시각을 갖다 좀 배울 수 있고, 학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 어우러져야 하는 거니까”라고 하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무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에서도 현직 도서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인식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 조별 토의와 사례 중심의 워크북 활용 등이 문헌정보학 전공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공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및 교과과정 설계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16개 문헌정보학과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문헌정보학과와 인재상과 전공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통해 ‘학과소개, 교

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과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었다.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정보처리 전문가, 창의형 전문 인재, 정보전문가, 정보서비스 전문가, 독서 전문가, 실무형 정보전문가, 창의적 전문 사서, 정보사회 선도 인재, 융합적 인재, 소통형 인재, 공감형 인재, 진취적인 정보 소양인, 공감적 정보서비스 전문가, 창의적 지식 관리자, 정보 처리, 가공,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창의적 사고와 실무적 해결능력을 갖춘 정보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정보전문인력, 문제해결형 인재, 현장 중심형 전문인재, 서비스인재, 데이터 정보 전문가, 전문사서 등

이러한 인재상은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며,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리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또한 전공역량으로 제시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역량들은 도서관 운영, 정보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의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도서관협회(ALA, 2022)의 핵심역량(ALACC)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정의된 직무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정보행태 연구 및 서비스 기획 운영 능력, 정보수집 및 조직 역량, 정보탐색, 정보유통 및 처리능력, 정보접근능력, 정보 자원 조직 역량, 정보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 지식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초지식, 전공지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정보/데이터 기술이해 및 운용,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 정보기술 중심적 소양, ICT 역량, 데이터지능, 도서관 및 정보조직 경영 능력,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 운영, 서비스 기획 및 실행 능력, 정보 관리 기관 운영 역량, 지식정보 인프라 운영 역량, 도서관과 저작권, 조직운영능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획,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이용자 정보서비스 역량, 의사소통, 정보서비스 역량, 독서지도 및 독서 교육 역량,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리터러시, 정보이용자론, 프로그램기획평가, 공감능력, 서비스 능력, 팀워크 능력, 봉사의식, 정보윤리, 콘텐츠 개발 능력, 기록 관리 및 아카이빙 능력, 문헌정보 응용 능력, 융합적인 소양, 창의융합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융합역량, 주제지식, 커뮤니티 퍼실리티, 데이터, 이타적 메디에이터, 인간중심적 소양,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다음으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타 전공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역량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P1(의료경영학)은 문제 해결 역량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였고, P3(사회복지학)는 “레고형 인재”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미래에 중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P2(경찰행정학)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 시각과 종합적 접근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며, 이는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길러지는 인재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 보존,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둘째, 실무형 정보전문가로서 도서관 및 정보기관에서 현장 실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셋째, 창의적 지식관리자로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한 인재이다. 넷째, 정보서비스 리더로서,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유통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식정보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재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은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그리고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전공역량에 맞는 교과목을 이승민 외(2021)에서 제시한 표준 교과목 제시안을 참고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서 도출된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인재상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각 전공역량에 따라 인재상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구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을 통해서는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와 '실무형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정보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 이론의 이해, 정보 자원의 수집, 분류, 조직 능력, 그리고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

<표 3>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및 교과목명 예시

순번	전공역량	역량 설명	교과목명 예시
1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 자원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료분류론, 자료목록론, 자료조직실습, 메타데이터설계
2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처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기술론, 디지털도서관, 데이터큐레이션, 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정보자원활용
3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도서관의 운영 전략 수립과 관리, 정책 환경의 이해, 그리고 협업을 통해 도서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도서관경영론, 장서개발론,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과 저작권, 현장실습
4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다양한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독서교육론,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리터러시
5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기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	도서관문화사, 지역문화콘텐츠론, 프로그램 기획평가, 문화자원아카이빙

〈표 4〉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인재상 및 학습목표 설계(안)

순번	전공역량	전공 인재상		학습목표		
		인재상1	인재상2	지식	기술	태도
1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실무형 정보전문가	정보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 이론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 자원의 수집, 분류, 조직 능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성에 대한 책임감
2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창의적 지식 관리자	정보서비스 리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디지털 매체 및 기술을 활용한 정보 분석 및 처리 능력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실무적 문제 해결 의지
3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정보서비스 리더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도서관 경영 이론과 정책, 운영 전략에 대한 이해	협업을 통해 도서관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능력	협력과 소통에 대한 개방적 자세와 리더십
4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정보서비스 리더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정보 이용자 분석 및 정보서비스 제공 이론에 대한 이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기획 및 제공 능력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헌신과 서비스 정신
5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지역사회와 문화 콘텐츠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자세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는 각 전공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로드맵 템플릿을 제시한다. 이 템플릿은 교과목 난이도에 따라 학습목표, 평가필수항목, 실습비율, 수업방식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을 다루는 교과목에서는 팀 프로젝트 기반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습 비율이 70%로 설정되

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이러한 템플릿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역량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경험, 적절한 교수법의 활용, 학제 간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박수미, 박지희, 2023). 특히,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P3(사회복지학)가 제안한 참여와 상호작용 중심의 활동형 수업 방식이나, P1(의료경영학)이 제안한 실무 연계 온라인 수업 방식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표 5〉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로드맵 템플릿

역량명	관련 교과목 (난이도-학년)	학습목표			평가필수항목	실습비율(%)	수업방식
		K	S	A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교과목A(2)	●			지필고사	0	
	교과목B(3-4)	●	●		발표	60	FL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교과목C(2)	●		●	팀프로젝트	70	PBL
	교과목D(3-4)	●	●	●	...	10	현장실습

* 박수미, 박지희(2023)에서 개발한 템플릿 기반으로 작성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및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16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웹사이트 데이터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의 다섯 가지 범주의 전공역량을 도출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 전공역량을 토대로 전공 교과목과 전공 인재상, 학습목표(지식, 기술, 태도)를 연계하여 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로드맵 템플릿을 제시하였다. 이 템플릿은 교과목 난이도에 따라 학습목표와 평가항목, 실습 비율, 수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개선된 교육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공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54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소범주와 3개의 대범주인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을 도출하여 각 대범주에 따라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학, 의료경영학, 경찰행정학의 자격 제도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사서자격증 제도가 보다 엄격한 자격 검증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2급 사서자격증은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발급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 검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설계된 데이터 분석이나 독서상담 등 세부 자격 검증 체계 도입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현장실습과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문헌정보학에도 필수 이수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의료경영학과나 경찰행정학과와 같이 대안적 실습 방식을 운영하는 협회와의 협력과 질 높은 온라인 실습과정, 현장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이 제시되었다.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 운영이 대학마다 상이하고, 필수 이수가 아닌 경우도 많아 실무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는, 교양과목

에서 설정된 역량이 전공역량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이로 인해 전공 고유의 실무역량이나 전문직으로서의 태도, 윤리적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 의료경영학, 경찰행정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합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량'은 지식 전달 중심의 사이버 강의로는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통적인 미래 역량을 중심으로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교육방식의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 사례 중심의 학습 자료 활용이 문헌정보학 전공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서자격증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 운영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전공역량 데이터와 타 전공 분야의 사례와 도서관 현장 관리자들의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승민 외(2021)의 사서 자격제도 개선 연구 이후 제도적 논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와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수집된 데이터가 주로 4년제 대학에 한정되어, 전문대학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질적 데이터의 특성상 제한된 학문 분야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더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 역량을 세분화하고, NCS나 ALA 등의 표준화된 역량 체계와의 연계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역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한 템플릿을 발전시키고, 교수자와 현장 전문가 간의 활발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나현 (2016). 사서직 계속교육 동향 분석: 온라인교육과 역량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215-24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2.215>
- 권선영, 차성종 (2016). 문헌정보학 전공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129-14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3.129>
- 노영희, 신영지 (2016).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 및 전공역량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2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021>
- 노영희, 심효정 (2023). 사서의 핵심가치 제안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 123-15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2.123>
- 박수미, 박지희 (2023). 대학의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설계 양식 표준화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727-744. <http://doi.org/10.22251/jlcci.2023.23.22.727>
- 백옥선, 이상윤 (2019).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9-01. 출처: <https://www.klri.re.kr:9443/bitstream/2017.oak/9148/1/66444.pdf>
- 손승남, 김인영, 송하석, 이재성, 최예정 (2021).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교양교육연구*, 15(1), 11-30.
- 이승민, 이정미, 정영미, 장인호, 이종욱, 양지안 (2021).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발간등록번호: 12-1371827-000009-01.
- 장수현, 박상욱, 남영준 (2022).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분석 및 인식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199-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199>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Available: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2022-update-alas-core-competences-librarianship>
- Griffin, P., McGaw, B., & Care, E.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4-017-9395-7>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New Jersey: Jossey-Bass.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k, Okseon & Lee, Sangyun (2019).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Ⅱ).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19-01. Available: <https://www.klri.re.kr:9443/bitstream/2017.oak/9148/1/66444.pdf>
- Jang, Soohyun, Park, Sangwook, & Nam, Youngjun (2022). A study on the analysis of curricula and perception survey for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199-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199>
- Kwon, Nahyun (2016). Analysis of trends in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Focus on online education and competency-base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215-24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2.215>

- Kwon, Sunyoung & Cha, Sungjong (2016). A study on curriculum management using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129-14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3.129>
- Lee, Seungmin, Lee, Jeongmi, Jung, Youngmi, Jang, Inho, Lee, Jongwook, & Yang, Jian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and Curriculu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Secretariat.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2-1371827-000009-01.
- Noh, Younghee & Shin, Youngji (2016). A study on defining the ideal talent and core competenc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2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021>
- Noh, Younghee & Sim, Hyojung (2023). A study on proposing the core values an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7(2), 123-15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2.123>
- Park, Sumi & Park, Jihui (2023).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design formats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univers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22), 727-744.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2.727>
- Son, Seungnam, Kim, Inyoung, Song, Haseok, Lee, Jaesung, & Choi, Yejeong (2021).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1), 11-30.